전주매일

▶▶ 매일 INDEX

4면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와 협력각서 체결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음 2월 13일) 제34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추진 힘 모아

전북자치도, 이노비즈협회 · 전북TF와 협약 체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협력 의지 다져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이노비즈협회와 체계적인 육성 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참여 및 협력에 손을 맞잡으면서 참여 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대회 준비에도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활성화를 위해 이노비즈협회, 전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사)이노비즈 협회 정광천 회장과 임동욱 전북지회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노비즈'는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술, 판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 기업 맞춤형 전주기 육성 지원 △이노비즈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체계적 육성 생태계 조성 △이노비즈 인증 취득률 제고를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프로그램 참가 및 대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이노비즈 기업의 전주기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취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소재 업력 3년이상의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1회에 한해 인증 수수료 70만원을 지원하고, 현장평가 항목인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를 대비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 육성에 뜻을 모은 전북자치도와 이노비즈협회는 나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에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대회 주최·주관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해 이노비즈기업의 전시회 참가 등 대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노비즈협회는 대회 홍보와 이노비즈 기업의 대회 참여 등 대회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책 수혜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취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내 농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다'

전북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1차 회의… 벼 품종 다변화 추진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서 1차 회의를 연 가운데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정 현안해결을 위하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서 2024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및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경제부지사와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유관기관, 농업인 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되고, 세부분야별 7개 분과가 별도 구성돼 전체 12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는 협치농정 거버넌스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올해 새로 취임한 황양택 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김중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소속 7개 분과의 정책세미나 주제와 2024년 농생명산업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어업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운영 등 농번기 농촌인력지원 방안과 신동진 보급종 공급 중단 대응의 벼 품종 다변화 추진,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 등에 대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업 전반에 첨단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수요자와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며, "농생명산업 수도로 걸맞는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중심의 정책 모색을 위한 분과별 세미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푸드테크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등의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농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전북자치도, 22일 지역 연고 호국영웅 추모

전북특별자치도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고,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연고자는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기습 공격하며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김모 병장이 있다.

2010년 3월 백령도 서남방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태 전사자 故 강현구 하사, 故 문규석 원사와 참전자 강모 병장, 박모 소령이 있다.

또한 2010년 11월 북한의 기습 방사포 공격으로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군산에 거주하다 입대한 故 문광욱 일병이 파편상으로 숨졌다.

전북자치도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35사단, 전북동부보훈지청,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열어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호국영웅들을 추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참석 내빈의 헌화 및 분향, 추모공연, 결의문 낭독, 합창, 특별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 모두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온 국민의 자유와 국토수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자랑스러운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숙여 영면을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다시는 서해수호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에서 힘써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서해수호 영웅들을 비롯해 독립운동, 6·25전쟁, 월남전 참전 등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유공자들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각종 추념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